

한화시스템, 단기 수익성 둔화 회사채로 재무운용 여력 확보

필리조전소 조기 생산 안정화 과정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손실 683억 회사채 최대 4000억 규모 발행 검토 방산 중심 본업 경쟁력은 유지 중

필리조전소 인수 이후 생산 안정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이 한화시스템 실적에 반영되며 단기 수익성이 둔화됐다. 방산 주주 확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회사는 회사채 발행을 추진하며 재무 운용 여력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은 지난달 30일 증권신고서를 통해 2024년 12월 인수한 필리조전소의 조기 생산 안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화오션 인력 파견, 공정 병목 해소, 설비 확충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해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손실 683억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화시스템의 지난해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11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0%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한화해운 지분 25%를 확보했고, 호주 조산·방산업체 오스탈(Austal Limited) 지분 19.9%에 대해서도 직·간접 투자를 진행하는 등 그룹 차원의 신사업 투자와 인수 참여도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한화시스템은 지난 2일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했으며, 발행 규모는 최대 4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발행일은 오는 11일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발행을 두고 필리조전소 정상화비용과 투자 집행이 겹친 국면에서 자금 운용 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전소 4번독(도크)에서 국가안보목적선박 건조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한화오션

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로 보고 있다.

방산 부문을 중심으로 한 본업 경쟁력은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화시스템은 방산·ICT·기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방산품 제조·판매가 주력 사업이다. 방산 부문 영업이익은 3분기 누적 기준으로 2023년 985억원에서 2024년 1412억원, 2025년 1526억원으로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방위력 증강 기조와 글로벌 무기 수요 확대 흐름 속에서 방산 부문 주주 기반도 유지되고 있다.

레이다·전술통신·지휘통제체계 등 방산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수주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12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M-SAM) 블록-III 체계 개발 사업과 관련해 다기능레이다(MFR) 시제 개발 계약(2006억원·2030년 6월까지)을 체결하며 국내 사업 기반을

확대했다. 지난해 10월에는 L-SAM 다기능레이다와 이라크항 천궁-II MFR 수출 계약을 동시에 확보하며 약 1조 2000억원 규모의 신규 수주를 쌓았다. 또 독일 딜리펜스와 협력해 IRIS-T SL M 체계에 MFR을 연동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유럽 방공망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ICT 부문은 클라우드 전환·운영 기술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개발 등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사채 발행은 단기 대응보다는 필리조전소 정상화 비용과 오스탈·한화해운 등 투자 집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운영자금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성격으로 보인다”며 “필리조전소의 흑자 전환 시점은 아직 특정하기 어렵지만 중장기 개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중소벤처, ‘신산업 진입장벽 해소’ 등 건의

중소 오찬간담회·K-국정설명회
김민석 총리 등 총 40여명 참석
중기중앙회 “필요사항 정부에 건의”

중소벤처소상공인업계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 신산업 진입 장벽 해소,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거래 시장 조성, 납품대금연동제 보완 등을 건의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김 총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가 열렸다.

당초 만남만 예정하고 날짜를 잡지 못했던 이날 행사는 고 이혜찬 총리 장례가 끝나면서 이날로 진행했다.

이날 자리는 김 총리가 직접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설명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회장은 “최근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부 대기업과 특정 업종에 성과가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워 ‘K자’ 성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오늘 정부가 ‘모두의 성장’을 중



(앞줄 왼쪽 6번째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이 3일 서울 종로 달개비에서 열린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심으로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중소기업계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국정 성과가 특정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까지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과 집행 방식을 점검하겠다”며 “경제, 외교, 사회 등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 경제인들과의 대화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1년에 한번하고 마는 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하고, 점검하고, 분과별로 하고 책임질 것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신산업 진입규제 완화(직역갈등, 규제샌드박스) ▲기술

탈취방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개선 ▲제값받기 문화 확산(납품대금연동제 보완·안착) ▲대·중소기업 공급망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벤처투자 활성화 ▲금융 등 뿌리업종 특화 AX 지원 ▲대기업-스타트업 간 신뢰기반 협력구조 마련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DX·AX 추가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정부에선 김 총리 외에도 노동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민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등이,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회장을 포함해 중기중앙회 부회장 20명 그리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중기부, ‘연구인력 지원사업’ 지방 중소기업 우대

지방 중소기업에 선정인력 60% 할당

중소벤처기업부가 연구인력 지원 사업을 통해 60%를 지방 중소기업에 할당하고 제조AI 중소기업 채용 지원도 늘린다.

중기부는 ‘2026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전문·학·석·박사 연구인력(신진·고경력) 채용 시 해당 연구인력 인건비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석사급 신진연구인력(만 39세 이하 전문학사 이상 취득 후 7년 이내)의 경우 1년차 연봉이 4100만원이라면 정부가 이 가운데 40%인 2000만원을 R&D 비로 지원한다. 특히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적 투자를 이행하는 기업에게는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신규 선정인력의 60%를 비수도권에 할당하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연구인력을 우대 지원하는 등 연구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AI 기술력 강화를 위해 제조AI 중소기업에는 연구인력 채용을 최대 2명(신진 1명, 고경력

1명)까지 늘려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출연연·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연구인력 파견도 지원한다. 파견한 연구인력은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노하우 전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중기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올해에는 다양한 중소기업의 기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11개 파견연구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파견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권역별로 선정된 연구인력 혁신센터 4곳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연구인력을 매칭하고 매칭인력의 인턴과정(2~4개월) 및 채용 확정 인력에 대한 R&D 프로젝트(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립창원대학교 연구인력혁신센터, 호서대학교 연구인력혁신센터, 전북대학교 연구인력혁신센터,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연구인력혁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는 AI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채용 수요가 있는 제조AI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양성된 인력을 해당 중소기업 채용에 연계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현대제철, 고로보다 탄소배출 줄인 강판 양산

전기로-고로 복합프로세스 가동

현대제철이 고로 제품 대비 탄소 배출을 20% 줄인 ‘탄소저감 강판’ 양산에 돌입했다. 전기로와 고로 쇳물을 배합하는 복합프로세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가동하며 자동차강판 공급을 시작으로 적용 물량을 확대한다.

현대제철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당진제철소에서 전기로-고로 복합프로세스 가동에 앞서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검증을 진행해 왔으며, 이달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고객사 평가와 강종 승인 절차를 병

행해 양산 기반을 구축했다. 이번에 양산을 시작한 탄소저감 강판 2종을 포함해 총 25종의 강종 인증을 완료했으며, 연내 28종을 추가해 인증 범위를 총 53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탄소저감 제품 양산 체제 도입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탄소저감 로드맵에 선제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올해부터 탄소저감 철강재를 국내 및 유럽 생산 차종에 일부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해당 공장에 공급되는 주요 자동차강판을 탄소저감 제품으로 공급하고, 향후 적용 강종과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LX하우시스 “올해 인테리어 키워드 ‘숨’”

‘트렌드십 세미나’ 열고 컨셉 제안

LX하우시스가 올해 인테리어 디자인 키워드로 ‘숨(Breathe)’을 제시했다. 급변하는 사회·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삶의 균형을 되찾길 원하는 사회적 흐름에 주목하면서다.

LX하우시스는 지난달 30일 건설사·설계사 등 B2B 고객과 인테리어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트렌드십(TRENDSHIP) 세미나’를 열고 올해의 디자인 컨셉과 방향성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LX하우시스가 제안한 올해 디자인 키워드 ‘숨(Breathe)’은 AI시대를 맞아 디자이너와 기술이 협력해 새로운 공간을 제안하는 방식에서 출발했다. 인공지능(AI) 대중화에 따른 산업 재편 등 급



LX하우시스는 지난달 30일 ‘2026 트렌드십(TRENDSHIP) 세미나’를 열고 올해 인테리어 디자인 키워드로 ‘숨(Breathe)’을 제시했다.

변하는 사회·기술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리듬으로 변화를 수용하며 일상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흐름을 담았으며, 가빠진 호흡을 조절하듯 삶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한다는 시대적 감각을 한국적 정서의 공간 언어로 풀어냈다. /김승호 기자